

“ 세상을 바꾸는
淡淡한 도전 ”



PARTNERSHIP
ON

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PARTNERSHIP ON

CONTENTS

- 03 아산 정주영
- 04 아산나눔재단
- 05 인사말
- 06 파트너십 온
- 08 3기 혁신리더 소개
- 18 1기 혁신리더 소개
- 32 2기 혁신리더 소개
- 40 함께하는 사람들



“

淡淡한 마음을 가집시다
淡淡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산 정주영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者精神;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일상 속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예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교육,
멘토링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비영리
분야에 혁신을 전파할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VISION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MISSION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HOME PAGE
www.asan-nanum.org

E-MAIL
info@asan-nanum.org

인사말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우리는 내일을 기다립니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소년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들에게 밝은 내일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기관들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파트너십 온'을 통해 청소년 지원 기관을 혁신리더로 선정해 함께 걸어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2기로 선정된 10개 기관을 재정적,
비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혁신리더가 하고 있는 사업과 조직의 성장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픔을 가진 아이 하나를 품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길에 네 개 기관이 새로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서는 우리 함께 우뚝 서 청소년들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눈길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파트너십 온’이란?

‘세상을 바꾸는 淡淡한 도전, 아산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사각지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과 아이디어 및 성장 잠재력을 지닌 비영리기관을 지원하여 해당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청소년 비영리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십 온’의 특징

파트너십 온은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도입하여 비영리기관(혁신리더)과 아산나눔재단, 전문가 그룹(자문위원, 전문위원)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충분하고 유연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파트너십 온’의 추진과정

<p>01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비영리기관</p>	<p>02 아산나눔재단과의 만남 VP 파트너스 구성 (혁신리더·재단·자문위원)</p>	<p>03 재정적 지원 사업지원금 기관별 연간 최대 2억원 (최대 3년 지원) 사업 기반 모든 예산 항목 지원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 포함 가능)</p>
<p>06 비재정적 지원 자문위원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 및 관련기관 임원): 사업 자문, 네트워크 형성 지원, 러닝시스템 구축 적용 전문위원 (전략·홍보마케팅·법률·세무회계 등 관련전문가): 조직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p>	<p>05 러닝시스템 월 1회 VP 파트너스 회의 연 3회 전체 혁신리더 워크숍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연계 참여 연속 2년 지원 시 기관장 및 담당자 해외연수</p>	<p>04 마일스톤 달성과 청소년, 비영리기관의 성장 사업의 방향 및 규모 재조정, 과정 평가를 통한 마일스톤 달성 확인 청소년과 비영리기관의 성장과 자립</p>
<p>07 나눔가치의 실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실현</p>		

재정적 지원

사업지원금 기관별 연간 최대 2억원 / 최대 3년 지원
사업 기반 모든 예산 항목 지원 / 인건비, 관리비 등 포함 가능

비재정적 지원

자문

- 자문위원을 통한 사업관련 전반 자문
-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1:1 변호사 매칭을 통한 법률 자문
- 한국공인법인협회 및 재단 내 세무사를 통한 회계세무 자문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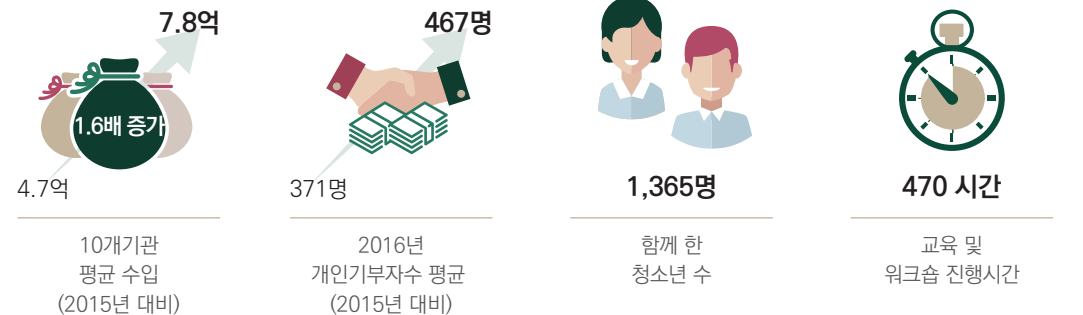
연차별 조직·홍보·모금마케팅·브랜딩 등의 컨설팅 지원

교육

3개년 목표	영역	교육과정
책임성	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초
		세무회계 실무
		근로기준법 (직원 근로자 및 청소년)
책임성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기초
		운영규정 작성

3개년 목표	영역	교육과정
책임성	리더십	격월 기관장 회의(네트워킹) 및 리더십교육
		기업가정신
사회적 영향력	성과평가	아산정신과 기업가정신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
		Design Thinking
재정 안정성	전략	문제해결 워크숍
		비영리전략
		홍보모금
Storytelling / Pitching	Storytelling / Pitching	Storytelling / Pitching 워크숍 및 개별교육

파트너십 온 사업 성과








혁신리더 3기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립년도	 설립목적	 웹사이트
2013년	장애인 예술분야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www.yeroom.org

사단법인 디티에스(DTS, Dance Theater Shahar) 행복들고나 전문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장애인예술을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에 장벽 없는 공동체 의식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자 설립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디티에스행복들고나는 장애인 예술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감정의 양상을 경험할 기회의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적응력을 향상함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응향상 프로그램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티에스행복들고나는 2015년 3월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전국 최초로 노원구에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인 '예룸예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사이에 끼어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소년에게 예술통섭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 경계선지능이란?**
DSM-IV(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표준화 된 개인용 지능 검사 결과 경도지능지체 정도인 50/55~70과 정상 수준인 85 사이 즉, 지능지수 70~84를 경계선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K-WISC-IV (한국웁슬러아동지능검사도구)에서는 경계선 수준을 지능지수 70~79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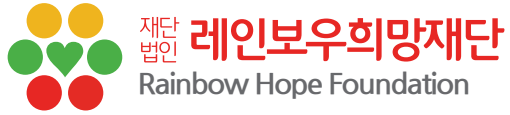
사업명 | 경계선지능 청소년(느린학습자)의 '지역사회-가정-학교' 트라이앵글 사회적응 프로그램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운영과 모델 확산을 위한
예술통섭교육지원센터 설립
경계선지능 예술통섭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국내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낮은 수준의 학업 능력은 왕따, 성폭력,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빈곤의 재생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티에스행복들고나는 '예룸예술학교'를 통해 교과목 중심의 보통교육은 물론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순수예술로 구성된 대안교육을 제공하며,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여 자존감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을 배양하는 등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티에스행복들고나는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로 연결된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학교에서의 순수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내 '생활적응 체험교육',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교육'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p>설립년도</p>	 <p>설립목적</p>	 <p>웹사이트</p>
<p>2015년</p>	<p>다문화, 탈북, 비행청소년 등 다양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스포츠 교실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p>	<p>www.rbhf.co.kr</p>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은 비행에서부터 탈북, 다문화, 저소득, 장애, 아동보호 시설, 학교폭력피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어렵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웃음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선교'라는 창립이념 아래, 사회 각지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교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전파합니다.

레인보우희망재단은 사회 안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낙인'으로 보았습니다. 낙인으로 좌절하는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팀 내 작은 역할 속에서 자존감을 찾고,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레인보우희망재단은 야구라는 팀 스포츠를 통해 여러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사회와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불만을 건전하게 해소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들이 다양한 성공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사업명 | 위기를 던지고 희망을 잡는 꿈꾸는 외인구단

위기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성 훈련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공




레인보우희망재단은 '레인보우카운트'라는 야구단을 창단하여 다문화, 저소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비행, 아동보호시설, 폭력피해, 일반 청소년 등 8개 그룹별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팀제를 바탕으로한 스포츠 교실 형태의 야구레슨을 실시하여 협동 및 단결심을 고양하고,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발달로 인한 야외 놀이공간의 축소로 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레인보우희망재단은 다양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하나로 뭉치는 스포츠 교실 모델을 부산시 16개 구·군을 거쳐 전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엘리트 중심의 유소년 스포츠 육성이라는 청소년 스포츠 교육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경종을 울리고자, 야구뿐만 아니라 태권도, 축구, 농구, 스노클링 등 다양한 종목으로 스포츠 교실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에 관한 흥미를 계발하고,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느린학습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글과 콘텐츠로 정보의 평등을 이룹니다.

 설립년도	 설립목적	 웹사이트
2014년	느린학습자와 발달장애인의 정보소의 극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독서 동아리 운영	www.peachmarket.kr

피치마켓은 ‘정보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본래 ‘피치마켓(Peach Market)’이란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같아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완전정보 상태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완전정보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정보 평등이 이뤄질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피치마켓은 80만 느린학습자와 19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점자가 필요하듯 느린학습자와 발달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언어로 구성된 글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능한 글을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느린학습자는 자존감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치마켓은 쉬운 글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치마켓은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정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업명 | 특수학급·일반학급 통합 독서 동아리 “피치마켓 프렌즈”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 제작 및 제공을 통한 독서 기회 제공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학생이 주도하는 참여형 통합교육 실현

‘피치마켓 프렌즈’는 책 한 권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는 지보다 얼마나 책과 친숙해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매주 진행되는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여 매년 12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장애인은 가족과 선생님이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마저도 일과에 대한 반복된 주제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에 피치마켓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며 매년 최소 한 명의 비장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내용을 소재로 매주 다양한 대화를 나눕니다. 발달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은 책 내용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정보를 함께 알아가고 대화의 폭을 넓히며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동아리에 참여한 비장애 청소년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수준을 넘어서 친구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발달장애인과 교류 기회를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평등한 세상

<p>설립년도</p>	<p>설립목적</p>	<p>웹사이트</p>
<p>2017년</p>	<p>자원봉사 중심의 교육기부를 통한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 확산</p>	<p>www.codeclubkorea.org</p>

코드클럽 한국위원회는 소프트웨어(이하 'SW')를 통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무료로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과 자원봉사자에게 도구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SW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SW전문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커리큘럼 개발 및 지속적인 단계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관련 사교육 시장은 이미 활성화되었고, 교육의 질과는 무관한 사교육비의 증가로 교육의 기회조차 동일하게 주어지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코드클럽 한국위원회는 '라즈베리파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무료 SW교육 프로그램인 '코드클럽'을 2017년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라즈베리파이재단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기초 컴퓨터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5달러 수준의 초소형 PC를 제조해 보급하는 공익단체로 2012년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이 무료로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코드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개 운영국을 통해 10만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SW교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코드클럽 한국위원회는 국내 최고 SW전문가 집단인 'SW마에스트로' 연수생을 통해 SW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학생교육기부단'과의 협업을 통해 SW교육 봉사자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사각지대 취약·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도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SW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코드클럽

영국 라즈베리파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코드클럽을 국내 도입하여 단계별 무료 SW교육 커리큘럼 제공

자원봉사 중심의 교육기부를 통한 올바른 SW교육 문화 확산

코드클럽은 교육봉사자가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코드클럽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오프라인 SW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드클럽의 커리큘럼은 SW교육의 기초인 '스크래치'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는 'HTML·CSS' 과정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입문하는 'Python'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커리큘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업데이트되는 최신 커리큘럼으로 선진화된 SW교육 문화를 전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 10개 운영국을 통해 해외 교류 및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나가며 국내 SW교육 인프라의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SW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드클럽에 SW교육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코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봉사자에게는 전 세계 동일한 코드클럽 공식 글로벌 교육봉사자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확인증이 제공됩니다.



혁신리더 1기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을 실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돌봄-성장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합니다



지향가치



대상



방법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한계를 넘는 돌봄서비스를 만들고 전파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구조 변화를 시도하여 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속적 돌봄의 구조를 개발합니다. 졸업생, 부모, 조부모, 지역사회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선순환공동체를 확립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내 교육 돌봄서비스 방식을 전환하여 주기적인 계획을 통해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7년 사업계획

동넝 모델(연속적 돌봄)의 확산

동넝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목적달성형 프로그램인 거꾸로교실 등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청소년 주도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보호/정서지원/교육/지역사회연계 등 4가지 분야별 초·중·고 연속지원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함께 돌보는 과정을 구조화해 지역아동센터 돌봄 모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주요성과

사단법인 해뜨는자리 설립을 통해 조직이 안정화되었고, 센터 신규공간 이전으로 청소년 돌봄에 적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 청소년 욕구에 기반한 연속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졸업생·부모·지역사회가 함께
... 돌봄을 제공하는 선순환 공동체 활동 확산의 기초를
... 마련하였습니다.

행복한청소년
(구 성모마을)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가·피해자 당사자 간의 시비를 가리는 현행의 관점을 벗어나 다학제적 전문가팀이 학급에 직접 개입, 공동체적 관점에서 건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p>지향가치</p>	<p>대상</p>	<p>방법</p>
-------------	-----------	-----------

‘행복한 청소년’은 학급의 역동을 파악하고 학급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하며,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징벌이 아닌 치유를 통한 학급 공동체성의 회복에 있음을 알립니다.

따돌림의 가·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등 주변학생을 포함한 학급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부모/교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학제적 전문가팀의 개입을 통해 학급구성원 전체의 마음을 치유하고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또 가해자 처벌 방식이 아닌 공동체적 방식을 통해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교권을 회복합니다.

주요성과

23개교 352명 대상 학급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따돌림과 가·피해자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고 따돌림 방어행동과 학급공동체의식이 향상되었습니다.

공공 및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체적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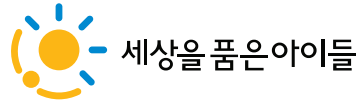
브랜딩컨설팅을 통해 기관명을 변경하고 기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결 방안 제시

행복한 청소년은 학급치유 및 예방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유도하는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파일럿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매뉴얼을 마련하여 따돌림 문제를 위한 다학제간 전문가 중심 공동체 개입 방식의 복제·확산 토대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 내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사업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핵심 범죄 청소년들을 변화로 이끌어
위기청소년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지향가치

문제가 문제해결자로 변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범죄에서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대상

중범죄 청소년과 같이 '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래 중 선 농(일진)의 긍정적인 변화가 또래 네트워크에 많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점을 감안, 1명의 변화가 100명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방법

대안가정의 인격적 신뢰를 기반한 그룹홈 클러스터링 체계를 마련 하였습니다. 인격적 신뢰 기반의 공동체 Home, 문화예술 몰입 교육의 School, 청년 사업가 양성을 통한 자립 Studio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의 Youth Campus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성과

- 청소년 이탈률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멘토링을 확대하였고 퇴소 이후 창업사업장을 오픈하여 아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Youth Campus 모델 안정화와 복제확산을 준비하였습니다.
- 법정시설 진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보하고,
- 기업후원을 확대하여 재정안정성을 키우고자 노력하였으며 브랜드 이미지 정비, 메시지플랫폼 정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는 Youth Campus의 확산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하 '세품아')는 2016년 회복적정의 이론과 실습의 확장을 통해 생활역량강화에 기반을 둔 세품아만의 고유한 청소년 회복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7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과 전국적 확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분식카페, 파이프스토리(지역 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국제교류센터(요식업 및 문화예술교육, 여행업) 등 세품아 아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아이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수감자 자녀와 가족을 사회복지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하고
국내 최초 수감자 자녀지원 모델을 구축합니다



<p>지향가치</p>	<p>대상</p>	<p>방법</p>
--------------------	------------------	------------------

항상 아동을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수용자 자녀 중심). 수용자 자녀와 가족, 그리고 세움파트너, 네트워크 단체 등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선한 마음을 신뢰합니다(신뢰). 아동 편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응원합니다(수감자 자녀 권리존중).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관심 받지 못한 수감자 자녀 및 가족을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인식개선캠페인 등 옹호활동을 통해 수감자 자녀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수감자 자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법무부 - 개별교도소 - 세움) 모델을 통한 통합적 개별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성과

수감자 자녀 개별사례 지원을 통해 통합지원모델의 기초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수감자 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과 네트워킹, 연구활동, 사례관리가이드 발행 등을 통해 수감자 자녀를 지원하는 전문단체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세움 비전 2020 수립 및 모금·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 후원자개발, 캠페인 진행 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또
· 인력 전문성 향상과 소통 강화 및 조직구조 변경을 통한
·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

수감자 자녀, 가족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세움은 장기적, 궁극적으로 “수감자 자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최종 목표를 세우고 수감자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구축·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7년은 이러한 수감자 자녀지원 모델 확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삼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통합적 개별지원을 지속하고 조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 아동인권관련단체, 수감자 자녀지원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수감자 자녀가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활발한 Social Action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육 - 양육 - 자립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소녀 양육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국내 최초 생활공동체형 대안학교입니다



지향가치

자오나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기 위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서로에 대한 공감, 함께 하는 성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

청소년양육미혼모와 아기, 그리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이 생활공동체 대안가족의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도록 합니다.

방법

교육+양육+자립의 통합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토대를 마련합니다.

2017년 사업계획

교육 - 양육 - 자립 통합지원체계의 확대

자오나학교는 기관의 정체성을 "교육 - 양육 - 자립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양육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국내 최초 생활공동체형 대안학교"라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합적 교육모델을 정립하며, 사회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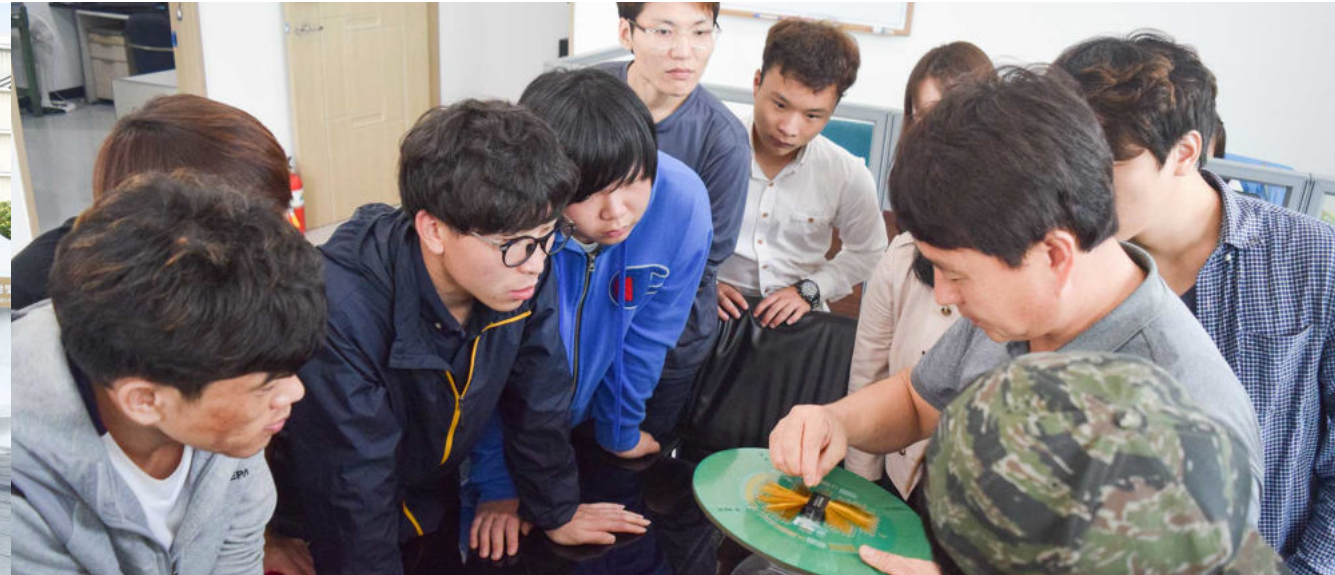
이와 함께 2차년도에 준비한 Edu-Biz 모델에 따른 작업장형 카페 (일명 자오나샵)를 오픈하여 학생들의 자립교육과 훈련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비즈니스를 통한 자립교육훈련 모델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기 개발된 진로개발과정과 양육자교육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독립실습주택 자오나하우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졸업생들의 완전독립을 지원하려 합니다.

주요성과

- 미혼모 양육역량훈련을 체계화하였고, 독립실습주택을 마련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오나학교와 기숙형대안학교 모델의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홍보를 진행하여 2014년에 비해 후원자수가 약 7배(270여명→1850명) 증가하였습니다.
- 미션 및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조직 운영방식을 체계화하였으며, 규정을 제·개정하고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진로 및 취업 중심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실현함으로써 남북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학교가 됩니다



지향가치	대상	방법
-------------	-----------	-----------

북한이탈청소년 사회의 대표적 자립 모델 학교로서 가족공동체, 꿈과 희망, 자기신뢰, 도전정신 4가지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기초학습 및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지원을 벗어나 진로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기계·기술, 서비스, 경영·경제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트랙을 마련하고 각각의 교육과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주요성과

2016년 해솔직업사관학교는 진로포트폴리오 매뉴얼 및 교과과정 구조화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북한이탈청소년 직업 교육의 대표 모델로서 '해솔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직원 훈련,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브랜딩을 통해
- 새로운 CI를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

해솔교육모델의 전파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거점화

해솔직업사관학교는 지난 2년간 기존 네트워크 구축 방식의 한계를 경험했으며 강원권으로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단순히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은 실질적인 재정적 출구전략이 될 수 없음을 통찰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 거점화를 위해, 춘천 시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내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 재정 구조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책의 성공적인 사례를 배출하여, 국내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진출의 활로를 개척하여 해솔 교육 모델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이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혁신리더 2기



뉴미디어와 예술교과를 통해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에 특화된
대안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지향가치

참여와 나눔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가치 아래,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청소년과 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 캠퍼스를
지향합니다.

대상

17-20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미디어와
예술로 풀어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환영합니다.

방법

뉴미디어와 예술 교과를 중심으로
대상 맞춤형, 과정중심의 학습자
주도형, 실생활 연계형, IT와 예술의
주제중심 융합형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주요성과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뉴미디어 기술 및
예술활동 창의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계속 학습과 성공적인 진로확보 활로를
구축하였습니다.

- 조직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 조직 및 인력을 개편하여 안정적 조직 운영의 기초를
-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교육 실행**

'사랑의 힘'에서 운영하는 꿈이룸학교는 작년에 개발한 대안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올해 정식 개교했으며,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중심의 대안교육 공간을 실현해 갑니다. 작년에 개발한 독자적인 대안교육과정은
1학년 3학기(1학기 3개월, 총 2학년 과정으로 학습 전반에 무기력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활동(연주, 드로잉, 퍼포먼스 등), 제작활동(프로그래밍,
3D프린팅 등), 영업활동(마케팅 등) 등 다채롭고 즐거운 대안교육 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가와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배운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 'Open Campus'를 구축할 것입니다.



‘성착취피해자’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며, 성매매 유인·알선을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변화를 위해 힘씁니다

지향가치	대상	방법
-------------	-----------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피해자’로 보고 찾아가는 상담과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환경 및 인식변화를 위한 이슈를 생산합니다.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포괄상담원이 사이버상에서 발굴하여 전문상담 지원체계인 S·N·S(Stop N Start)에 연계합니다. S·N·S는 유일하고 전문적인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입니다.

사이버포래상담, S·N·S,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 개별로 존재하는 팀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제도적·구조적 변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펼칩니다.

2017년 사업계획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 강화

2016년에 마련한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내담자의 욕구에 맞게 실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피해 사실 발굴협조에 필요한 외부 협력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위한 활동과 성매매 유인·알선·조장 관련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및 규제 법안 마련 등 사회 환경과 인식변화를 위한 이슈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성과

- 2016년에는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의 제·개정 활동과 성매매알선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법적 대응 등 활발한 사회적 이슈를 생산했습니다.
-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전문상담원 채용 및 교육을 통해 통합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홍보 TF팀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받아 홍보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계 없는 융·복합적 미술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청소년이 이미지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지향가치**

시각장애인은 예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한계와 규제 속에 개인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시각장애인의 창조적 능력을 재발견하고 미술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상**

우리들의 눈은 '시각장애 청소년'에 대한 창의적 미술교육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방법**

일반적인 미술교육에서 벗어난 창작중심의 수업을 제공하고, 오감 수업(조형, 미각, 패션, 사진 등)과 3D, IT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업 등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감각 발달과 학습을 돕습니다.

주요성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미술 교육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감각발달과 표현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 청소년의 미대진학 지원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필요성 제고를 위한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예술과 장애 등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정체성 확립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으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R&R을 명확화하여 조직체계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

**융·복합 미술교육 콘텐츠 마련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모델 제시**

2016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맹학교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시각장애인 미대 진학 지원', '시민 아카데미' 등 개별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분절되어 있던 앞선 3가지 사업을 조직력있게 연결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 대상 융·복합 미술교육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하여 창의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파트너십 온 운영위원회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권 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김정현 언더독스 대표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호 기아대책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창호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실장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태훈 DSC인베스트먼트(주) 전무	

기관별 자문위원

김진우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넙지역아동센터 (1기) 우리들의 눈 (2기)
박경수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행복한 청소년 (1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1기)
이상균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상을 품은 아이들 (1기)
최혜지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오나학교 (1기) 해솔직업사관학교 (1기)
최승희 교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랑의 힘 (2기) 십대여성인권센터 (2기)
김정현 대표	언더독스	코드클럽 한국위원회 (3기)
백은령 교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디티에스행복들고나 (3기) 피치마켓 (3기)
유동철 교수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레인보우희망재단 (3기)

전문위원

한국공인법인협회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세상을 바꾸는
淡淡한 도전,
아산이
함께합니다



PARTNERSHIP ON

E mail
partnership@asan-nanum.org

Homepage
www.asan-nanum.org

파트너십팀
차선주 팀장, 권현우 매니저, 전경호 매니저, 조상욱 매니저

